

노조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집행부의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위원장 백은중(37) ▷1공장부위원장 손은호(29) ▷요

트 부위원장 유우림(30) ▷알루미늄C/T 부위원장 남문수(37) ▷사무장 신덕수(32) ▷기획국장 이상복(26).

노조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집단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재미교포 사장 자본철수에 맞서 US마그네틱 노조원들 농성 벌여

노 90.8.24

【인천=이용수기자】 재미교포 사장의 임금체불과 자본철수 기도에 맞서 노조원들의 농성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U·S마그네틱 노조(위원장 성현순)는 지난 10일부터 4억여원의 임금체불 끝에 자본철수를 확책하고 있는 사장 폴·김씨에 맞서 농성을 벌여오다 8월10일부터는 회사 사무실을 점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 회사는 83년 설립 당시 30여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불과 몇년 사이에 2백50여명의 사원과 연간 매출액 1천만불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노조가 설립되자 사장 폴·김은 임금인상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한국에 있는 자본을 철수, 남미·코스타리카 등지로 3천여명 수용 규모의 새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활동중인 한청련 측에 따르면 폴·김은 의정부에 공장을 설립할 것도 모색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8월 17일 이를 위해 극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장의 귀국 소식을 접한 노조위원장 등 12명은 지난 20일 인천지방노동청 북구사무소(인천시 북구 부평동 소재)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으나, 사무소측은